

한국출판사 속의 잘 팔린 책들

李稔子씨 중앙대 박사논문 「베스트셀러 요인에 관한 연구」

개화기 이후 약 100년간 어떠한 출판물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지 그 요인을 분석한 논문이 발표됐다. 동아일보 출판부 차장인 李稔子씨가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베스트셀러의 요인에 관한 연구」는 작품, 출판기획, 시대상황, 출판산업구조의 요인이라는 분석틀을 사용해 한국출판사에 있어서 베스트셀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그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베스트셀러는 동시대인의 집단적 심층심리

한 권의 책이란 한 저자만의 산물이 아니다. 책을 존재케 하는 한 주체로서의 저자가 있으며, 또다른 주체들인 출판사(인)과 독자,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조건이 있다. 따라서 한 권의 책은, 특히 거대한 집단의 독자가 수반되는 베스트셀러란 동시대인의 공동체험이자 집단적 심층심리이며 전체 사회의 구조적 산물이다.

그러면 베스트셀러란 무엇인가. 여러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월등히 많이 팔린 책', 나아가 '평균을 넘는 판매성과를 올린 책' 등의 표현으로 압축되고 있다. 유사개념으로는 장기간 잘 팔리는 책인 스테디셀러(steady seller), 성서나 고전처럼 시대를 초월해 잘 팔리는 책인 롱셀러(long seller), 센세이셔널한 면이 강조되며 짧은 시간에 수백만권 팔리는 책인 밀리언셀러(million seller), 대체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잘 팔리는 책인 빅셀러(big seller), 문학류처럼 대단한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없으나 어느 분야에서 그 무렵 잘 팔리는 책인 톱셀러(top seller) 등이 있다.

그러나 베스트셀러는 베스트 북(Best

Book)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80년대 말에 이르러 중립적인 시각의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베스트셀러에 관한 본격적인 논문이나 저서, 그리고 단행권의 번역서도 없다는 점에서 그 논의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의 '베스트셀러 연구의 고전주의자' 모트(F.L.Mott)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베스트셀러의 탄생은 성공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일에 특별한 공식이 없는 것처럼 정확한 양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추출해낸 베스트셀러의 요인은, 종교적 호소력·선정주의·자기향상의 동기·개인의 모험·발달성·민주주의·적시성·유우머·환상·성에 대한 강조·이국적 배경 등의 내용적 요인들과 제목·장정·발간 전의 캠페인·서평·책광고·영화제작·값싼 복사판 등의 시장요인으로 구분된다.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조건들

근대 이후의 출판은 자본주의적 이윤창출의 메카니즘에 종속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이윤동기가 가장 큰 것은 역시 베스트셀러라 불리는 출판물들이다. 현대의 자본주의 출판물은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해 존재할 정도로 베스트셀러에 대한 환상은 크다.

이 연구에서의 시대구분은 도서출판물의 자본주의적 대량생산이 대두된 시기를 분기점으로 하였으며 출판의 산업화를 중요한 변수로 삼은 결과, 1. 근대출판여명기(1883~1910), 2. 계몽적 애국출판기(1910~1945.8.15), 3.



출판활성준비기(1945.8.15~1961), 4. 통제 속 출판정착기(1962~1972), 5. 권위주의적 출판활성기(1973~1987)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로벤스타인(L.Lowenstein)에 의하면 매체의 발전은 E.P.S곡선(elite-popular-specialized curve)을 그리는데, "매체의 엘리트단계에서는 베스트셀러의 출현이 극히 드물고 대중화단계 이후부터 대두한다"는 "발전단계설"도 참조하였다. 즉 우리나라에 있어서 베스트셀러의 등장은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와 도서출판 관장기구인 박문국이 설치된 1883년을 대중화단계의 시작으로 보아 그 기점으로 삼은 것이다.

베스트셀러 탄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물론 독자. 베스트셀러의 사회적 효용에 대한 격렬한 찬반논쟁은 베스트셀러가 만들어지는 요건 중 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반증해준다. 그 다

음으로는 저자. 출판사의 꿈은 독자들이 한 저작자의 다음 저서를 읽고 싶어하게 될 그런 저작자를 발견하는 일일 것이다. 서구의 경우 거액의 선불 인세(advance royalty), 높은 인세율(royalty rate), 큰 부차권(subsidiary rights) 등으로 인기저자를 유혹한다. 즉 '작가 자신이 바로 베스트셀러'인 것이다. 그리고 앞서 모트가 지적한 작품적 요인들.

최근들어 출판기획의 요인이 크게 부각된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데 있어서 기획은 이제 출판의 생명이다.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조건을 외국에서는 '3S', 즉 Sexual, Sentimental, Sensational로 요약하는데 그 적중률은 '10~20% 미만'으로 보고 있다. 우수한 기획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수집, 독자층의 파악을 위한 시장조사, 광범위한 취재원의 확보, 아이디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金在恩 지음 / 7,000원

심리학적 관점에서 문헌분석과 실증조사방법을 병행하여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의 특징·구조를 연구하였다. 사변적, 주관적인 경향이 짙었던 그동안의 한국인에 관한 연구를 수정·보완하면서 사회과학 내지 행동과학 연구의 기초적 관점을 제시해 준다.

性の心理學

A. G. Kaplan, M. A. Sedney 지음
김태련·이선자·조혜자 옮김 / 15,000원

남녀의 심리학적 차이를 생물학적·상황적 요인으로 보아왔던 지금까지의 견해와 논의에 대한 반박으로 양성성은 개인적 특성이라는 입장에서 성역할 심리학의 문제를 체계화할 수 있는 양성성의 일반적인 모델을 제시, 성차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存在의 心理學

Abraham H. Maslow 지음
李惠星 옮김 / 5,500원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자아실현의 인간'으로 명명하고 행동주어나 정신분석학에서 다루지 못했던 인간본성의 낙관론을 제시한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표적 저서로서, 인간의 긍정적인 내적 본성에 대한 열정으로 독특한 인간형을 정립하였다.

社會心理學의 大家들

J. A. Schellenberg 지음 / 金東一·李東瑗 옮김 / 2,600원

사회심리학 연구의 네 가지 유형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론, 레빈의 장(場)이론, 스키너의 조직적 행태주의의 이론을 정리하여 현대심리학의 패러다임을 전문적이면서도 평이하게 서술, 이들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논하였다.

학술출판
대학교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전화 : 360-3163, 360-3164 팩시밀리 : 312-4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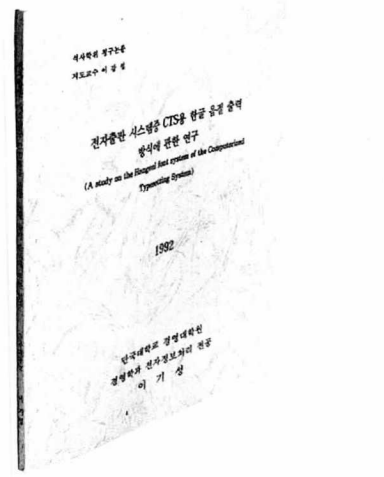
전자출판시대의 글자꼴 연구

이기성교수, 컴퓨터용 한글출력방식 발표해

한국전자출판연구회 회장으로 있는 이기성(48, 동국대 정보산업대학원)교수가 최근 「전자출판시스템 중 CTS용 한글음절 출력 방식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했다. 단국대 경영학과 대학원에 제출된 이 논문은 전자출판 시대를 맞아 보기 좋고 가독률 높은 한글 글자꼴의 개발이 절실한 가운데 연구돼 나와 출판·전산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종이책이건 비종이책이건 출판에서 사용하는 출력용 한글 글자꼴은 그 글자꼴이 있게 하는 기준이 되는 본그림이 있어야 한다. 이 본그림이 얼마나 보기에 좋은가에 따라 활판 인쇄용 활자, 옴셋인쇄용 활자, 컴퓨터용 디지털 활자 등의 품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출력용 글자꼴의 본그림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현재 전자출판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글데이터는 향유되는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출력시 나타나지 않은 음절이 있는 등 부분적인 결함이 있다. 데이터에 따라 가령, '똥'이나 '활', 아래이(·)를 사용하는 몇몇 현대고어들이 그 예로, 이 글자꼴들은 컴퓨터 내에서 조합이 불가, 유사글자에서 필요한 부분을 오려내 일일이 '썩자'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논문은 현재 사용중인 국민학교 국어교과서의 한글음절을 분석, 가독성 및 변별성을 비롯, 글자꼴 자체의 균형과 미려함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전자출판시스템이 안고 있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학교 1~6학



년 읽기·말하기 교과서 12종과 성인용 책 1권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씨에 따르면 여기서 단 한번이라도 사용되는 한글음절의 수는 총 11,172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자주 사용되는 글자수는 1,500여개 정도. 또한 2,500여개 정도의 글자는 거의 쓰이지 않는 글자들이다.

결론에서 필자는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완성형(사용되는 글자꼴의 전부를 만들어놓는) 방식이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완성형과 조합형의 중간형태인 절충형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앞서의 빈도수 조사에서 나타났듯 자주 쓰이는 1,506개의 글자는 완성형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9,666개 정도의 글자는 자소모양에 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의 절충형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 방법이 "모든 현대 한글음절을 나타낼 수 있고, 한글글자꼴의 미려함을 높이는" 데 가장 적합하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어의 문서화 등이 필요하다.

그밖에 시대상황, 출판산업구조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대상황에 좌우된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근대출판여명기에는 출판인들이 상업적 의식보다는 애국지사적 의식이 보다 강했던 시기로, 그 이전까지의 권선징악적 요소 및 신파조의 요소들과 더불어 갖 전래된 기독교의 영향으로 나타난 자주독립적 사상이나 신학문에 대한 동경, 그리고 새로운 윤리관에 대한 정립을 보인 「혈의 루」와 같은 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대비적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출판사의 출현을 겨우 본 이 시기의 독자층이란 극소수 엘리트계층이었음을 감안하면 베스트셀러의 의미도 오늘날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계몽적 애국출판기는 일제강점기이므로 출판물의 종류 자체가 사상적이거나 의식을 담은 것은 제재를 당하는 상황에서 소설이나 족보 등이 편파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었다. 「홍」이나 「상록수」 등.

출판활성준비기에는 미 군정 하에서 방만한 출판이 전개되었다. 이념서적이 쏟아지는 한편 우리말 교과서와 사전류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우리말본」에 이어 「광장」이 등장했으며 베스트셀러가 문고판과 전집류에서도 나오는 등 출판물의 대량소비시대를 예고했다.

통제 속 출판정착기의 베스트셀러는 대일관계 정상화로 인해 일본책들이 그 위치를 점유했다. 이어서 안병욱, 이여령, 김형석 등의 문

명비평적 수필집들이 큰 공감을 얻었다. 그밖에 월부판매제의 확대로 전집류 발간과 출판의 기업화가 촉진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감상적이고 성적인 소설과 수기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권위주의적 출판활성화기는 정권의 지나친 통제로 인해 '상업주의' 출판이 극성했다. 「별들의 고향」으로 시작되는 호스텔스 이야기들이 베스트셀러 주요품목이던 시기. 한편으로는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 등의 작품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다.

한편 80년대에 이르면 상업주의 시비는 한풀 꺾인 듯하나 출판 유통상의 비합리적인 요소들로 인해 판매와 판매량이 조작되는 양상이 대두하였다. 또 하나의 특이한 현상은 「홀로서기」「접시꽃 당신」 등 시집의 베스트셀러 진입. 그러나 지나친 광고전력과 끼워팔기 등으로 인해 베스트셀러를 내고도 손해를 보거나 망하는 출판사들도 생겼다.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는 시대적 상황에 압도적인 영향을 받았다. 80년대에 이르면 출판기획의 요인에 의해 베스트셀러가 탄생하기도 했지만 우연에 의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책의 성공은 예상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는 말과는 좀 다르게 문화상품으로서의 책은 마땅히 백년대계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리라고 본다.

— 김중식 기자

키에르케고어의 단독자 개념

표재명 지음 / 4,500원

박사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으로 저자는 키에르케고어의 일기, 유고, 주요저작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단독자 개념이 타자와의 일체의 공동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을 지향한 "구원의 방향에서의 미래의 관점"이었음을 밝힌다.

가난뱅이 죠니와 아르니까

이르빈 라이자르 지음/채운경 옮김 / 4,000원

가난뱅이 떠돌이와 어여쁜 공주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이 동화는 동구권의 헝가리 동화라는 점과 아버지와 아이가 마주앉아 함께 이야기를 꾸며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어린이의 창의력을 길러준다 는 점이 특징이다.

사단칠정론

민족과 사상 연구회 편 / 10,000원

우리의 전통사상 중 하나인 四端七情에 대한 해석을 다룬 23편의 논문을 한데 모은 이 책은 사단칠정론은 덕치라는 이상 정치와 오륜 질서의 확립, 人尊·人本 정신의 함양을 궁극 목적으로 하므로 인간의 자기 탐구·자기 성찰을 위해 상세히 살펴져야 함을 밝힌다.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해석학

한국 현상학회 편 / 8,500원

한국 현상학회 5집으로 출간된 이 책은 "생활 세계"가 모든 객관적 이론의 기초와 그 탐구 의미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통찰이 바로 현상학의 독자적 기본틀이며 생활 세계의 현상학과 해석학은 "주관"을 복원시키는 작업임을 밝힌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